

성역할 태도와 공격적 영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박 윤 창·윤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매체(media)를 통한 공격장면은 공격적 사고와 연관된 다른 정서들을 활성화시켜 공격행동이 나타날 확률을 높인다는 점화가설과, 공격행동 관찰후 나타나는 공격행동은 각성을 매개로 하여 나타나는지의 두가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격적 영화와 중립적 영화등 2종의 자극 영화를 통해 72명의 연세 대학교 남학생들에게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피험자는 Bem의 성역할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성역할 태도에 따른 공격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기충격의 강도를 공격성의 지표로 보았을 때, 공격적 영화를 본 피험자와 중립적 영화를 본 피험자간의 공격행동에 차이가 없었으며 남성성의 피험자는 양성성이나 여성성의 피험자보다 더 많은 공격행동을 보였다. 한편 지속시간을 공격성의 지표로 보았을 때는 공격적 영화를 본 피험자들이 중립적 영화를 본 피험자보다 더 많은 공격행동을 보였으며, 충격 강도와는 반대로 여성성 피험자의 공격행동이 남성성이나 양성성의 피험자보다 더 많았다. 한편 공격적 영화는 생리적 각성과 정서적 각성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격적 영화는 직접적으로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서, 생리적 각성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역할 태도는 상황요인(영화)에 의한 영향보다는 직접적으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공격적 영화는 다른 정서요인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화가설과 각성을 매개로하여 공격행동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지지되었다.

공격행동 장면이 노출된 후, 관찰자의 후속 공격행동의 증가 여부 문제는 여러가지 이론적 각도에서 검토되어 왔다. 그것은 전통적인 관찰학습 모델 또는 최근의 인지적 점화가설과 일반적 정서 유발이 후속 공격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주장 등이다. 그러나 최근 양성성의 연구와 같이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면서부터 성역할 지향이란 성격 특성이 공격 행동 유발에 대한 또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관찰학습 모델과 인지적 점화가설 폭력장면을 관찰한 후에 나타나는 공격성에 관한 실험연구는 주로 폭력물의 즉각적 효과(immediate effects)

를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격성의 획득에 있어 전달 매체(media)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즉각적 효과를 모방과 관찰 학습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전달 매체에서 관찰된 공격은 모방되어지고, 따라서 관찰학습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격행동의 표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론으로서, 매체에서의 공격행동은 공격적 생각을 촉발하며 이는 다시 자동적으로 그와 연관된 정서와 생각들을 촉발하여 공격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폭력을 관찰한 후 그 결과로서 새로운 공격반응을 습득한다는 첫 번째 주장은 1960년대 초기에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크게 지지를 받아왔으며, 특히 TV 폭력물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이와같은 관찰 학습 과정을 강조해 왔다. 즉, 묘사된 행위가 하나의 모범이나 예로 작용하여 관찰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 적절한 형태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Bandura, 1965, 1971, 1973 ; 윤진과 정양은, 1970).

그러나 이와같은 관찰학습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우선, 관찰학습은 전달매체에서 보여진 특정한 공격행동의 학습만을 설명하고, 다른 종류의 공격적 행동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보면 일단 학습된 공격행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관찰학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공격 행동은 순간적으로 존재할 뿐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비판과 동시에 공격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이 새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기억 및 인지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화 효과(priming effect)와 전개 활성화(Spreading Activation)에 근거를 둔 이론이다. 일찌기 Collins 와 Loftus(1975)는 생각 요소(thought elements)는 결절(node)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경로를 통하여 방출활동을 하며 따라서 다른 연관된 생각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전개 활성화 가설을 설정했으며 Berkowitz(1984)는 이러한 가설을 기초로 점화가설을 세웠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내용에 대해 직접 반응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 반응하며 따라서 여기에는 기억이 개입하게 된다. 기억이란 일종의 조직망(network)으로서 이것은 단위(unit)와 결절(node)로 구성되며 이것은 다시 연합경로(associative pathway)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로는 각각의 인접성(contiguity), 유사성(similarity), 그리고 의미적 관련성(semantic relatedness)에 의해 활성화 된다(Berkowitz, 1984).

관찰 학습이 전달 매체(media)에서 보여진 특정한 공격행동의 학습만을

설명하고 다른 공격적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 반해, 이와 같은 인지적 접근은 관찰된 공격행동은 그것과 연관된 생각, 정서 등을 활성화시켜 결국 전혀 다른 형태의 공격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관찰학습 이론에 따르자면 폭력물의 관찰후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공격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관찰된 공격행동과는 다른 형태의 공격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Parke, Berkowitz, Leyens, West & Sebastian, 1977). 예를 들어 1973-1978년 사이의 헤비급 권투시합 중계후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격행동인 살인율이 증가했는데(Phillips, 1983; Phillips 와 Hensley, 1984) 이는 폭력물의 영향을 모방학습이나 모델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시청자들은 그 사건이 주는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묘사된 사건은 의미적으로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를 활성화 시키는 점화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Phillips, 1979; 1982). 특히 총, 칼과 같은 무기가 실제로 혹은 영상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면 공격성이 유발된다는 무기효과(weapon effect)는 위와 같은 인지적 해석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Berkowitz and LePage, 1967 ; Leyens and Parke, 1975 ; Turner and Goldsmith, 1976).

그런데 그 동안의 관찰 학습과 관련된 공격행동 연구들은 후속 공격의 증가 여부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었을 뿐, 그 매개자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그 매개자의 독특한 변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었다. 특히 인지적 측면은 주의집중, 폭력장면에 대한 선호도, 공격자나 피해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매개 변인에는 이와 같은 인지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지와 관련된 정서 유발의 측면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 정서유발 Zillmann(1978, 1979)은 위와 같은 폭력물의 시청이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에는 각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찰된 폭력은 자율신경계의 흥분상태(autonomic arousal)를 증가시킴으로써 공격성의 표현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정으로 설명되어진다.

첫째, 각성(arousal)은 유기체의 전체적인 활동성을 고양시켜 어떤 종류의 반응이라도 더 즉각적으로 표출하도록 해준다. 예를들면, Geen과 O'Neal(1969)의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권투시합 장면과 비폭력적 영화를 보여준 후, 판단과제의 수행중 상대방이 틀렸을 경우 전기 쇼크를 주게 하고 어떤 피험자에게는 소음을 들려줌으로써 각성을 유발시켰다. 이 때 소음으로 각성된 피험자들 중, 권투시합 장면을 본 피험자들이 더 많은 공격적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소음으로 야기된 생리적 각성이 공격성을 더 활성화 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폭력물에 야기된 각성으로 관찰자의 공격성은 더욱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적개심을 표출한다(Geen과 O'Neal, 1969 ; Worchel, Hardy와 Hurley, 1976).

둘째, 관찰자들이 폭력물을 봄으로써 생기는 각성을 분노(anger)로 잘못 지각하여, 분노에 의해 동기화된 공격행동(anger-motivated aggression)을 더 많이 표출하게 된다. 피험자에게 세가지 영화 [공격적 영화, 선정적 영화(erotic film), 그리고 중립적인 영화]를 보여준 후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을 때, 사전 검사에서 생리적 각성을 가장 크게 일으켰던 선정적 영화를 본 피험자들이 가장 많은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Zillmann, 1971). 이것은 영화에 의해 생긴 각성을 피험자들은 자신의 분노로 잘못 지각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세째, 각성이 아주 강한 경우 이것은 관찰자들에게 혐오적인 자극(aversive stimuli)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혐오자극이나 고통자극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기제를 통하여 공격성을 표출한다(Marshall과 Zimbardo, 1979).

또한 Donnerstein, Donnerstein과 Barrett(1976)와 Zillmann과 Johnson(1973)의 연구에서는 중립적 내용의 영화는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중립적 영화가 공격적 사고의 암송(rehearsal)을 중단시키며 따라서 영화를 보기 전의 공격적 사고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격행동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공격적 영화, 또는 비공격적이지만 각성을 야기시키는 영화는 각성의 감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격행동의 증가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Zillmann(1971, 1979)이 어느 특정한 종류의 정서 유발이 아닌 일반적인 정서 유발(general arousal)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정서적 유발 상태 가운데 분노, 절망, 증오심 등 하나 하나의 특정한 감정 상태를 거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의 비판이 있다. 즉, 공격행동은 단순히 감정적 유발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공격행동을 오직 감정 유발 중심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같은 특정한 정서 상태가 공격행동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이러한 상태는 전반적인 정서 상태의 일부분으로서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뿐이므로 전반적인 정서 상태를 공격 행동에 대한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진, 1987).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격적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줄이려는 사회적, 시민

운동이 효과를 거두려면 TV 시청과 공격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변인에 대한 경험적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논의해 오고 있는 개별적인 정서적 매개 변인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 나가야 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새로운 매개 변인에 대한 검증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성역할 지향(sex-role orientation) 한편 이와 같은 공격 장면노출 후의 공격행동은 그 관찰자가 가진 특성 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남성성, 여성성 또는 양성성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지향(sex-role orientation)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이 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행동을 많이 보이거나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많이 범한다는 일반적 인식이나 통계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1978-1983)의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의 범죄중 살인,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는 총 1,199,833 건 이었는데 이 중 남성의 범죄비율은 89.75%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성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남녀간에 공격적 추동(aggressive drive)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 양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Bandura, 1973 ; Feshbach, 1970) . 즉, 공격행동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남성들은 신체적인 공격을 나타내며 여성들은 다른 전략(예를 들어, 언어적 공격인 모욕이나 비언어적 책략인 노려보기)을 사용하므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한 신체적 공격을 표출한다(Stone 과 Hok-anson, 1969).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공격성을 적게 나타내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수행억제의 문제라는 견해가 있다(Bandura, 1973 ; Mischel, 1970). 이것은 여성이 공격행동에 대해 죄의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격성향을 억제하며 그것을 인정하기조차 꺼린다는 사실을 나타낸다(Kagan 과 Moss, 1962). 한편 Mehrabian 과 Epstein (1972)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감정이입’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이입을 더 잘하기 때문에 공격성의 표출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공격행동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는 발달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화 과정과도 관계가 있다. 일반적인 사회화의 과정에서 남성은 공격적, 자기 주장적, 지배적으로 양육되고 여성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여성답지 못하다’고 하여 그런 행동을 억제당하고 있다. 공격성이나 자기 주장성, 그리고 지배성은 여성 사이에서 보다는 남성사이에서 더 많이 지지받고 있으며(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더 나아가서 남성에게 있어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주장성은

여성에게는 다소 공격적으로 보여진다(Sherman, 1971). 따라서 이러한 현실속에서 공격성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승인받지 못할 행동이며 “공격적”이라는 말은 여성에 대한 부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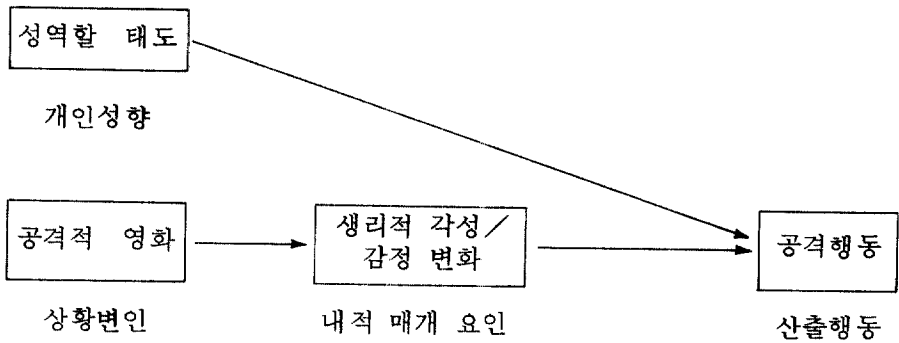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바로 사회화의 차이 즉, 성 특화화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제하여 여러가지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Eron, Huesmann, Lefkowitz & Walder, 1972 ; Leftkowitz, Walder, Eron & Huesmann, 1973). 또한 Leventhal, Shemberg와 Van Schoelandt(1968)의 연구에서 공격성은 성역할 태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공격성의 차이가 단지 성 염색체의 차이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그 결과가 서로 달리 나온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은 동일한 척도상의 양 극단’이라는 잘못된 가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Block, 1973 ; Constantinople, 1973 ; Pleck, 1975). 즉, 남성성 또는 여성성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사람이 이 두가지 특성을 모두 공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성성-여성성이란 2분법적 논리와 가정을 비판한 Bem(1975)은 양성성(androgyny)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며, 같은 차원위의 양극에 위치한 특성이 아님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Deaux, 1976). Bem(1974)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 모두 상당수가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두가지 성격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만 그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나 양성성을 지닌 사람들의 대처반응은 각 성에 의해 특징화된 사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격성에 있어서 양성성의 영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격적 매체가 그 관찰자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기본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TV폭력물을 본 후 나타나는 감정 및 그와 연관된 정서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봄으로써 점화가설을 검증해 보고, 또한 생리적 각성이 폭력물 시청과 공격행동을 매개하는가를 알아 봄으로써 Zillmann의 주장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격성에 있어서의 성차가 생물학적인 성별의 차이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사회화 과정의 부산물인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

지지 않은 양성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설 모형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기초로 한 연구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1] 공격적인 영화를 본 피험자는 비공격적인 영화를 본 피험자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다.
- [가설 1-2] 영화는 생리적 각성과 정서적 변화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공격적 영화는 생리적 각성을 증가시키고, 감정을 부적으로 변화시키며,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을 증가시켜 결국 공격 행동을 보다 높게 표출시킬 것이다.
- [가설 2] 성역할 태도가 남성성인 피험자는 성역할 태도가 여성성인 피험자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양성성인 피험자는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성역할의 평균치의 공격행동을 나타낼 것이다. 즉, 공격행동의 표출 순위는 남성성, 양성성 그리고 여성성의 순이 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피험자는 1988 학년도 1 학기에 연세대학교 전교생 선택과목인 “인간 행동의 심리적 이해”를 수강하는 정상혈압을 가지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중 Bem(1974)의 성역할 검사(Bem Sex-Role Inventory)문의 사전 검사를 통해 남성성의 경향을 보이는 24명, 여성성의 경향을 보이는 24명, 양성성의 경향을 보이는 24명씩 총 72명의 피험자를 선발하였다. 이 72명의 피험자는 2개의 영화조건(공격적 영화/중립적 영화)에 36

명씩 무선할당 되었다. 각 집단에서 성역할 태도의 비율은 동일하였다.

설 계 3 (성역할 태도 : 남성성 / 여성성 / 양성성) × 2 (제시된 영화 : 공격적 영화 / 중립적 영화)의 완전 무선 요인 방안으로 설계되었다.

도 구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성 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em (1974)의 성 역할 검사 문항으로 사전 검사하였고, 생리적 각성과 정서적 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압(최저/최고)과 심장 박동수, 그리고 중다 감정 형용사 체크목록(MAACL: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과 의미 변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1961)의 공격기계(Aggression Machine)를 사용하였다.

1) 공격기계 : 피험자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1961)의 공격기계를 수정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10개의 스위치를 가설하고 전기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두 개의 전극을 마련하여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에 부착시켰다. 전기 쇼크는 1부터 10까지의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전달되도록 장치되었으며 스위치에 표시된 수치가 높아질수록 전달되는 전기 쇼크의 강도도 높아지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공격 기계에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공격기계와 퍼스널 컴퓨터를 연결시켰다. 컴퓨터에서는 피험자가 누른 스위치의 번호와 그 지속시간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인체저항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류의 양은 다르지만 평균적인 인체저항을 1500 ohm으로 잡으면 '1번 스위치'는 110V 0.065 mA의 전류가 흐르고 '10번 스위치'는 110V 0.073 m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2) 성역할 태도 검사 : 피험자들을 각 조건에 할당하기 위한 사전 검사로 각 피험자들의 성 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m(1974)이 제작한 성 역할 검사(Bem Sex-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성성을 나타내는 20 문항, 여성성을 나타내는 20 문항, 검사 목적의 위장을 위한 20 문항 등 총 6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척도가 없었으므로 원래의 척도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남성성 문항 20개와 여성성 문항 20개 그리고 위장 문항 10개를 뽑아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8543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얻었다.

여기에서 남성성을 나타내는 20 문항의 평균이 남성성 점수가 되며, 여성성을 나타내는 20 문항의 평균이 여성성 점수가 된다. 그 다음 한 개인의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t검증을 실시하여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 그 사람은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성특징화 되어 있는 것이다(즉, t 값이 -2.025 보다 작으면 여성적으로 성특징화 되어있는 것이고 2.025보다

크면 남성적으로 성특징화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t 값이 -1 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즉,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남성적 혹은 여성적 어느 방향으로도 성특징화 되지 않은 양성적이 된다. 한편 t 값이 -2.025 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여성적에 가깝다’이며 t 값이 2.025 부터 1 사이에 있으면 ‘남성적에 가깝다’고 본다.

3) 감정 척도: 피험자의 감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Bleda, Bell 과 Byrne(1973)이 제작한 6개 문항의 의미 변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7점 척도로 사용했으며 김 은정(1986)이 사용한 Zuckerman, Lubin 과 Robin(1969)의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을 사용하였다. 의미 변별 척도의 각 문항을 모두 합치면 최저 6 점으로부터 최고 42 점 까지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MAACL은 불안을 묘사하는 10개의 형용사, 우울감을 묘사하는 14개의 형용사, 그리고 적대감을 묘사하는 24개의 형용사 등 모두 48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용사들중 긍정적인 형용사에 체크된 수와 부정적인 형용사에 체크되지 않은 수를 합하여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4) 자 극: 각 조건의 집단에게 각기 7분 30초 길이의 영화를 보여 주었다. 공격적 영화는 국산 폭력 영화인 “오사까 대부”(’87년 서진통상 제작(Video), 이 혁수 감독, 이 대근 주연)중 극심한 공격장면만을 골라 편집한 것이고 중립적 영화는 1988년 4월 MBC-TV에서 방영된 “다도해를 가다”를 편집한 것이었다. 이를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한 명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14명에게 미리 평정시킨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평정은 이 영화의 내용에 ‘공격적이다/아니다’ 그리고 ‘공격성을 유발한다/유발하지 않는다’였으며 각 영화에 대해 15명의 평정자간의 평정은 일치하였다.

절 차 실험은 개인별로 실시하였으며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와 있는 듯이 보이는 다른 피험자를 만나게 하였다. 그후 이 두 사람을 각기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는 커다란 칸막이로 가려놓아 서로 바라볼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먼저 온 피험자는 사실은 실험 협조자(confederate)였으며, 피험자의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이 실험은 두 사람의 피험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실험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녹음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본 실험에 참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 실험은 주로 실험실에서 행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상황이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데에는 많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낮은 실험실 환경과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생리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험실 연구의 결과는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본 실험은 실험실 상황에 적용하는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실험실 연구의 결과들을 실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여러분의 정서적 상태와 생리적 상태로서의 혈압을 측정 한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 실험이 8분 내지 15분이 소요되므로 실험 대신 그 시간동안 지루함을 없애고 또한 실험을 실시하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TV를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TV시청이 끝난 후 TV내용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하시면 언제라도 실험을 그만 두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지시를 한 후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랐다.

1) 피험자와 실험 협조자에게 감정을 측정하는 의미 변별 척도와 MAA-CL 용지를 나누어 주고 표시하게 하였다.

2) 검사가 끝난 후 혈압을 측정하고 영화를 보게 하였다.

3) 영화가 끝나자마자 피험자의 혈압을 다시 측정하고 또다시 의미 변별 척도와 MAACL 용지와 조작 검증용 질문지, 그리고 실험상황을 평가하는 문항을 나누어 주고 각 문항에 표시하게 하였다.

4) 검사가 다 끝나면 첫번째 실험은 끝났으며 바로 두번째 실험에 들어간다고 하며 다음의 지시문을 녹음기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인체 내에는 항상 -70mV 에서 $+70\text{mV}$ 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류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변화하게 되고 이 변화는 다시 혈압, 뇌파, 심전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체내 전류, 혈압, 뇌파, 심전도 등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은 전기 충격을 사용하여 위의 관계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그런 변화가 개인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두분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방법은 연구자료(data)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분 중 한분은 본 실험의 보조자로서 또 한분은 피험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역할은 앞에 보이는 상자 속의 카드를 한장 뽑는 것으로 나누어질 것인데 두 카드중 하나는 실험자, 나머지 하나는 피험자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험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그만 두셔도 괜찮습니다.”

지시문 제시가 끝난 후 피험자에게 실험에 계속 참여하겠느냐고 의사를 물어 확인한 후, 피험자와 실험 협조자에게 두 장의 카드를 보여 주었다. 두 장의 카드중 한 장에는 ‘실험자’, 그리고 나머지 한 장에는 ‘피험자’라고 써어 있었으며 이 두 장의 카드를 피험자가 보는 앞에서 상자속에 집어 넣고 실험 협조자에게 제비를 뽑으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피험자 카드 뒤에 표시를 붙여 놓았으므로 실험 협조자는 항상 피험자 카드를 뽑았으며 제비를 뽑은 후 실험 협조자는 자신이 피험자 카드를 뽑았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실험 장치를 설치하였다. 즉, 피험자 카드를 뽑은 실험 협조자의 머리, 손목, 가슴 등에 전극을 부착하는 척하고 실험자의 역할을 하는 피험자 앞에 컴퓨터 모니터와 공격 기계를 갖다 놓았다.

5) 그 후 다시 다음의 지시문을 녹음기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피험자의 역할을 맡으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면 되지만 실험자에게서 전기충격을 받게 됩니다. 전기 충격의 강도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강도입니다.

실험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앞에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 ‘Press the button’이라는 글씨가 나타나면 앞에 있는 1부터 10까지의 누르는 단추(button) 중 하나를 눌러 주십시오. 여기에서 숫자가 높을 수록 흐르는 전류의 양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격이 세 집니다. 또한 단추(button)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총 20회의 시행을 할 것인데 20회 시행이 끝나면 화면에 끝났다는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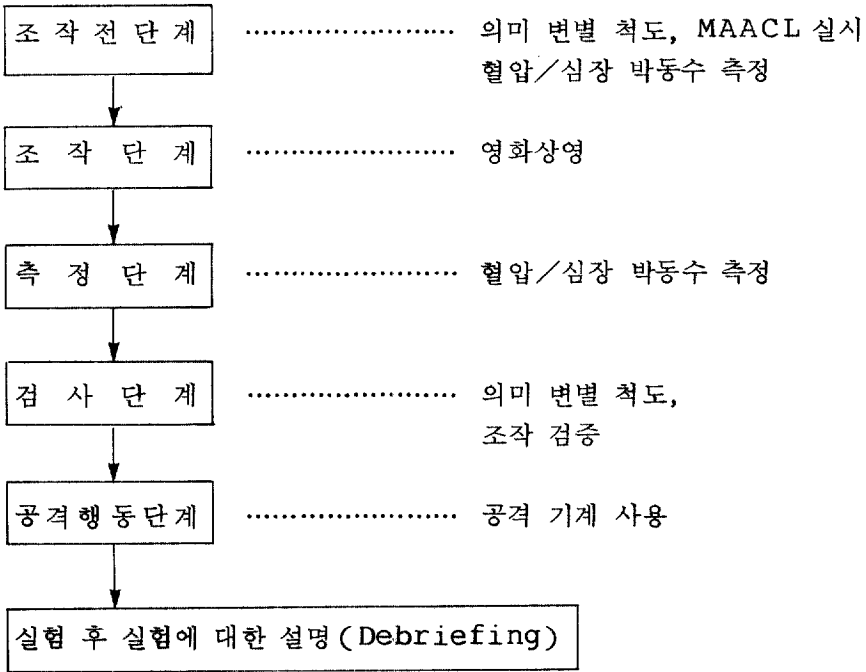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전기충격의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차례의 예비 시행을 자신이 직접해 보겠습니다.”

지시문 제시가 끝난 후 피험자에게 전기 충격의 전달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세번째 손가락에 전극을 부착시킨 후 1부터 5까지 연속적으로 약 0.5초 정도 눌러 그 단추에 써여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전류의 강도를 알게 하였다. 이 순간 이후부터는 피험자와 실험 협조자에게 서로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지하게 실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피험자 앞에 놓인 컴퓨터의 모니터 상에는 피험자가 쇼크를 줄 때마다 각 란의 수치가 변화되게 하여 실제로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여성 실험 협조자는 공격성향을 감소시킨다는 보고(Buss:1963)가 있었으므로 남성 실험 협조자만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실험 협조자에 의한 공격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협조자는 같은 인물로 고정시켰다. 실험이 끝난 후 각자에게 모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전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피험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실제로는 실험 협조자이며 본 실험은 개인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으며 앞에서 ‘생리적 변화를 측정한다’는 지시를 한 이유는 공격성을 있는 그대로 측정하기 위한 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말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면서 오해나 상대방에게 전기 충격을 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감정을 해소시킨 후 돌려 보냈다.

본 연구의 실험 절차를 간단히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실험 절차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IBM-PC의 통계 프로그램인 SPSS/PC+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중 성 역할 태도와 영화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이원 변량 분석(2-way ANOVA)으로 검증하였으며 매개 변인으로서의 생리적 각성과 감정 변화에 대한 가설은 경로 분석(Path Analysis)으로 검증하

였다.

1. 실험적 조작 검증(Manipulation Check)

실험적 조작 단계에서 보여준 영화를 피험자가 실험자의 의도대로 지각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화에 관한 4가지 문항에 대해 10점 척도상에 평정시킨 점수들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 집단별 영화에 대한 평가

평 가 차 원	영 화 유 형		P
	중 립 영 화 (n = 36)	공 격 적 영 화 (n = 36)	
주 의 집 중	7.4167 (1.991)	7.3889 (1.886)	ns
재 미	5.3611 (2.392)	4.5278 (2.249)	ns
공 격 성	2.1667 (2.490)	8.4422 (2.049)	.000
평 온 성	8.5278 (2.063)	2.1111 (1.720)	.000

주) 각 점수는 1 (아니다) ... 10 (그렇다) 사이의 척도이다.
()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중립 영화 집단과 공격적 영화 집단은 주의집중 ($t = .06, df = 70, p = .952$)과 재미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다 ($t = 1.52, df = 70, p = .132$). 또한 영화를 공격적으로 지각하는 데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t = 11.73, df = 70, p < .001$), 평온하게 지각하는 데에도 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 = 14.33, df = 70, 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 쓰인 공격적 영화/중립적 영화는 실험자의 의도대로 지각되었다.

2. 공격행동

공격행동은 피험자가 20회에 걸쳐 전달한 충격 강도의 평균과 충격 전달의 평균 지속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1) 충격 강도

여섯가지 조건에서 공격행동을 한 평균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변량분석 결과 <표-3>, 세가지 성역할 태도 집단간에서만 차이가 밝혀졌다(남성성=6.23, 양성성=5.595, 여성성=5.395; $F(2,66)=9.426$, $p<.001$).

<표2> 영화 유형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피험자의 평균 충격 강도

성역할/영화유형	중립 영화	공격 영화
남성성	6.01	6.45
양성성	5.61	5.58
여성성	5.25	5.54

<표3> 성역할 태도와 영화에 따른 충격 강도에 대한 변량 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역할태도	9.090	2	4.545	9.426 ***
영화	.980	1	.980	2.032
상호작용	.684	2	.342	.709
오차	31.827	66	.482	
전체	42.581	71	.600	

*** $p < .001$

사후검증(Duncan의 다원 구획 검증=.05) 결과 남성성 집단은 양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과 차이가 있었으며 양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2) 지속 시간

충격을 전달한 평균 지속시간은 충격강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평균 지속시간은 <표-4>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원 변량 분석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충격 강도와는 달리 공격적 영화를 본 피험자들의 공격 행동 ($M=1255.12$) 이 중립적 영화를 본 피험자들의 공격 행동 ($M=590$)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F(1,66)=14.594$, $p<.001$). 또한 성역할 태도와 영화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F(2,66)=3$).

〈 표 4 〉 영화 유형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피험자의 평균 지속 시간
(단위 : msec)

성역할/영화유형	중립 영화	공격 영화
남성성	539.03	921.06
양성성	703.97	1030.62
여성성	527.01	1813.74

〈 표 5 〉 성역할 태도와 영화에 따른 지속 시간에 대한 변량 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성역할태도	2436713.056	2	1218356.528	2.233
영화	7963242.320	1	7963242.320	14.594***
상호작용	3486590.511	2	1743295.255	3.195*
오차	36013355.977	66	545656.909	
전체	49899901.864	71	702815.519	

*** $p < .001$

* $p < .05$

사후 검증 (Duncan의 다원 구획 검증 = .05) 결과 여성성-공격적 영화 집단은 모든 다른 조건에서 보다 더 충격 지속시간이 길었다. 여기에서 여성성-중립적 영화 집단과의 차이와 남성성-공격적 영화집단, 양성성-공격적 영화집단과의 차이는 성역할 태도와 영화 유형에 따른 상호 작용 효과를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격적 영화를 본 피험자는 비공격적 영화를 본 피험자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3. 생리적 각성

영화를 보기 전과 영화를 본 직후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차를 집단별로 알아 보았다. 우선 두 측정치간의 차이가 처음 측정치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음 측정치에 대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고혈압, 최저혈압, 심장 박동수 모두 각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 그리고 심장 박동수의 사전, 사후 측정치간의 차의 평균은 <표-6>과 같다.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 혈압은 공격적 영화를 본 남성성의 피험자만이 증가했고, 최저 혈압도 마찬가지로 공격적 영화를 본 남성성의 피험자 및 여성성의 피험자에 있어서 증가했다. 그러나 심장 박동수에 있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남성성의 경우는 공격적 영화를 본 경우 증가하지만 여성성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 표 6 > 영화 유형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피험자의 생리적 변화
최고혈압/최저혈압(심장 박동수)

성역할	영화유형	중립 영화		공격 영화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남성성	성	-6.00	-3.92 (4.08)	2.25	3.75 (11.50)
양성성	성	-4.67	-3.92 (.17)	-3.50	-1.42 (.25)
여성성	성	-6.50	-3.50 (2.42)	-2.83	.17 (-2.88)

각 집단간 세 변인(최고혈압, 최저혈압, 심장 박동수)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에 있어서는 영화에 의한 주효과만이 나타났다 ($F(1,66)=7,715, p<.01$; $F(1,66)=6.853, p<.05$). 즉, 중립적 영화를 본 집단이 공격적 영화를 본 집단보다 더 많이 혈압이 낮아졌다. 한편 심장 박동수에 있어서는 성역할 태도와 영화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F(2,66)=4.038, p<.05$)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공격적 영화를 본 남성성 집단의 심장박동수가 중립적 영화를 본 양성성 및 여성성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4. 정서적 각성

피험자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는 형용사 의미 변별 척도와 MAACL은 영화를 보기전과 본 직후 두번에 걸쳐 반복 실시하여 그 두번의 측정치의 차를 집단별로 알아보았다. 두 측정치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전에 처음 측정간의 차이를 변량분석하여 두 측정치간의 차이가 기저선(baseline)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형용사 의미 변별 척도에 의한 감정의 변화 <표7>와 우울감과 불안감 그리고 적대감에 대한 각 집단의 사전, 사후 측정치간의 차의 평균은 <표8>과 같다. 이 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 영화는 감정을 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우울, 불안, 적대감 모두를 감소시킨 반면, 공격적 영화는 대체로 감정을 부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우울, 불안, 적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양성성의 피험자는 공격적 영화를 본 후 감정이 정적으로 변화했으며 불안감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7〉 성역할 태도와 영화 유형에 따른 감정 변화

성역할 \ 영화유형	중립 영화	공격 영화
남성성	4.33	-2.42
양성성	2.50	1.83
여성성	2.25	-2.33

〈표 8〉 성역할 태도와 영화 유형에 따른 MAACL 변화

성역할 \ 영화유형	차원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중립	공격	중립	공격	중립	공격	중립	공격
남성성	-2.33	.83	-2.58	1.08	-1.92	1.58		
양성성	-.50	.25	-2.33	-1.08	-1.17	.50		
여성성	.33	.67	-2.00	.25	-1.00	1.08		

각 집단간 네 변인(감정,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에 대한 차이 검증을 해 본 결과 감정변화는 영화에 의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1,66)=17.230, p<.001$) 성역할 태도와 영화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F(2,66)=3.413, p<.05$). 우울감에 있어서는 영화에 의한 주효과가 약하게 나타났으며 ($F(1,66)=3.262, p<.10$), 불안감에 있어서는 영화에 의한 주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F(1,66)=29.520, p<.001$) 상호작용도 약하게 나타났다($F(2,66)=2.542, p<.10$). 한편 적대감에 있어서는 영화에 의한 주효과만이 나타났다($F(1,66)=27.164, p<.001$).

사후검증(Duncan의 다원 구획 검증=.05) 결과 감정 변화에 있어서는 양성성-공격적 영화집단은 남성성-공격적 영화 집단과 양성성-공격적 영화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성-중립적 영화집단과 양성성-중립적 영화 집단, 그리고 여성성-중립적 영화 집단은 각각 남성성-공격적 영화 집단과 양성성-공격적 영화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안감에 대한 사후검증(Duncan의 다원 구획 검증=.05) 결과 여성성-공격적 영화 집단은 중립적 영화의 3집단과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성-공격적 영화집단은 여성성-공격적 영화 집단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나머지 4집단과 모두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다시 요약하면, 성특징화 되어있는 피험자는 양성적인 피험자보다 영화에 의해 정서적 각성이 더 많

이 야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와 공격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5. 경로 분석(Path Analysis)

공격적 영화를 본 후 나타나는 공격행동은 생리적 각성과 정서적 변화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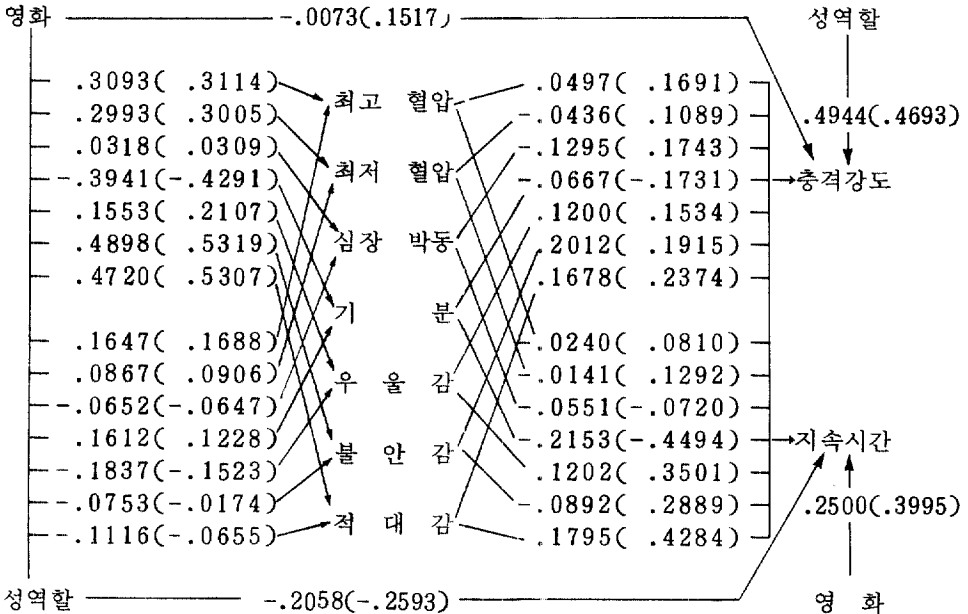
독립 변인은 영화의 유형과 성역할 태도인데 이 두 변인은 유목변인이므로 중립적 영화를 0으로, 공격적 영화는 1로 하고 성역할 태도는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의 t점수를 사용하여 매개 변인인 생리적 각성과 감정적 변화 그리고 종속변인인 공격성(충격 강도와 지속시간)과의 단순상관을 내었다. 단순상관은 한 변인의 다른 변인에 대한 총 영향(total effect)을 나타낸다.

한편 총 영향중 어느 정도가 직접적 영향(direct effect)이며 어느 정도가 간접적 영향(indirect effect)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를 산출하였는데, 우선 영화와 성역할 태도가 생리적 각성(최고혈압, 최저혈압, 심장 박동수)과 감정 변화(감정,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화와 성역할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생리적 각성과 감정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들의 경로계수를 검토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모든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공격행동의 지표인 충격 강도와 지속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들의 경로계수를 검토하였다.

<그림-3>에는 각 변인들간의 단순 상관 계수(괄호 안)와 경로계수(괄호 밖)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와 성역할 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총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뉘어진다. 영화의 유형은 성역할 태도보다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성역할 태도가 직접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충격 강도에 대한 직접 효과 = .4944, 간접효과 = -.0251; 지속시간에 대한 직접 효과 = -.2058, 간접효과 = -.0535), 영화는 생리적 각성/감정 변화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공격행동의 지표중 충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충격 강도에 대한 직접 효과 = -.0073, 간접효과 = .1590; 지속시간에 대한 직접효과 = .2500, 간접효과 = .1495). 이러한 결과들은 [가설 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즉, 공격적 영화는 생리적 각성과 감정 변화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어떤 측면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는 공격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어떤 매개 변인을 통하여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피험자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영화/성역할 태도, 감정, 공격행동간의 경로 분석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들을 앞서 설정한 가설의 순서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적 영화를 본 집단은 중립적 영화를 본 집단보다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냈다. 그러나 영화에 의한 효과는 지속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공격적 영화가 공격행동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방학습 이론이나 점화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며 [가설 1 - 1]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유형화되어 있는 피험자보다 양성성의 피험자는 공격성의 표현이 충격 강도와 지속시간에 있어서 영화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서 볼 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사회가 그 아이에게 각자의 성별에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려는 현실에 대해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Bem

(1974)과 Spence, Helmreich와 Stapp(1975)이 지적하고 있듯이 한 특정한 성에 유형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대처 행동을 하지 못하며, 이에 반해 양성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잘 적응하여 사회적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회화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성역할 태도를 습득케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부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생리적 각성과 감정적 변화가 성역할 태도 및 영화와 공격행동을 증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한 결과 성역할 태도는 공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 영화는 생리적 각성과 정서적 매개 변인으로 하여 공격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영화는 공격적 사고와 연관된 생각, 정서등을 활성화 시켜 결국 공격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점화가설을 지지하며 Zillmann의 연구를 확인하였다. 즉, 정서적 각성이나 생리적 각성은 공격행동의 표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윤진과 정양은(1971)의 연구에서도 정서는 공격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본다면 방송이나 영화에서 극심한 폭력장면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즉, Zillmann(1971, 1979)과 Berkowitz (1965), 그리고 Geen(1976)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로, 비공격적인 영화지만 각성을 야기시키는 영화도 공격행동의 증가를 보일 수 있으므로 엄격한 심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장면만이 아니라 그 영화가 관람자 개인에게 주는 영향 즉, 생리적/정서적 각성을 고려하여 심의와 규제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설 2]에 대해 살펴볼 때 충격 강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했을 때는 남성성의 피험자가 양성성이나 여성성의 피험자보다 훨씬 공격성의 표현이 높았다. 그러나 양성성과 여성성의 공격성의 표현은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충격 지속시간을 측정지표로 사용했을 때는 가설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즉, 공격성의 표현은 중립적 영화의 경우에는 양성성이 가장 높았으며 공격영화를 본 집단은 여성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양성성과 남성성의 순이었다. 이는 남성은 일시에 강렬한 공격을 하며 여성은 약한 공격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며, 이는 공격성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공격적 추동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 양식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Bandura, 1973 ; Feshbach, 1970). 또한 이는 Mischel(1970)이 말하는 공격행동의 수행 억제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이 공격성의 표현을 남성보다 적게 하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수행억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죄의식, 불안, 두려움 등을 느

끼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표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공격성 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약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자신이 외형적으로 공격적이라고 보이지 않고도 충분히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갈등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가정 폭력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고 괴롭히는 갈등상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등도 이러한 결과와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강도와 지속시간이란 두가지 지표에 있어서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것은 이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파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피험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의 충격을 전달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은 그의 정서적인 각성과 생리적 각성의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아울러 그의 내재적인 공격적 반응(즉, 생각이나 운동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가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연관요소(associative determinants)들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피험자는 그가 본 공격적 영화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하여 그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격을 촉발시키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 즉 전기 충격강도는 의도적(intentional) 공격 행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강도의 충격이 가져다 줄 효과를 예상하는 의도적인 공격행동과는 달리 피험자들은 자신들이 전달하는 전기 충격의 지속시간은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속시간은 무의식적인 공격 행동이 되며 이것은 충동적(impulsive) 공격 행동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공격행동의 구분을 본 연구의 결과와 연관시켜 본다면, 의도적 공격행위는 공격적 영화에 의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성역할 태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재적인 요소는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충동적 공격행위는 환경적인 요소인 공격적 영화에 의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폭력물에 대한 비판은 주로 (1) 폭력물은 대인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공격을 선호하게 만들고 (2) 폭력으로 인한 고통에 무관심해진다 는 점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폭력물에 의해 사람들은 공격적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나중의 반사회적 행동(여기서는 공격행동)을 하게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대중 매체(mass media)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관찰자로 하여금 친 사회적 행동 또는 반사회적 행동 가운데 어느 것이든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TV나 라디오, 신문 등은 친 사회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며, 실제적이거나 혹은 허구적인 형태 어느 것이나 폭력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공격행동이 나타날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공격적 행위가 대중 매체에

의해 전달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 대중 매체에 의해 전달된 행위가 실제로 나타나는 데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관여된다.

폭력물 문제는 청소년 범죄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 폭력물의 즉각적 효과를 다룬데 반해 폭력물의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문제로서 대중 매체는 폭력을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의 공격행동을 야기시키며, 범죄와 폭력의 수법이나 과정 등을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며, 폭력장면의 주인공을 이상화 또는 영웅화하여 미화시킴으로써 직접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중 매체와 범죄와의 관계를 태도의 문제로 보면 폭력물의 전달은 폭력을 미화하여 폭력에 대한 동경에로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거나, 폭력 범죄에 대해 무비판적, 또는 무감각적인 성향이 되도록 변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대중 매체의 영향은 일차적으로 그것과 접촉하는 개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발달 과정에 있으면서 주변의 환경과 자신과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의 경우, 대중 매체와 접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간접으로 공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쳐 비행 잠재성 등이 형성되기 쉽다. 따라서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보 전달의 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수정, 보완되고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남성으로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Leventhal 등(1968)의 연구 등에서 공격성은 성별과 성역할 태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성차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공격성과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 대상의 공격행동 실험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지표로서 평균 전기충격 강도와 지속시간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치들은 질문지법이나 투사적 방법보다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강도높은 공격과 강도는 약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격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공격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른 차원의 공격성의 지표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외의 다른 측정치들도 공격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나 지속 시간뿐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 하는 누르는 강도(pressing strength) 또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공격행동의 표출은 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위치를 더 세게 누르는 것으로도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 기계 (Aggression Machine)는 피험자의 체험 시행 중에 피험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인체 저항에 따라 1부터 5까지의 충격이 약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강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피험자의 경험은 나중의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므로 먼저 피험자의 인체 저항을 측정해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정도의 전기충격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공격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네째, 본 연구에서 폭력 장면은 영화의 장면을 편집한 것이어서 피험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화의 연기자를 피험자들이 알아 볼 수 없는 무명인으로 하여, 연기자에 대한 선입견이 공격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립적 영화는 우리나라의 경치와 어촌의 풍경 등의 장면이었는데 여기에서 배경음악이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이것이 감정 억제작용을 일으켜 중립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공격적 영화의 반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논의해야 할 점은 중립적 영화에서 피험자들이 음악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면 폭력적 장면에서의 음향효과 등 다른 요소들에 의한 공격행동의 유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Wright 와 Huston(1983)의 연구에서 전달매체에는 행동, 음향효과 등 시청자의 주의를 끄는 요소가 있고 이는 다시 피험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와같은 주의집중이나 내용의 이해는 피험자가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데 영향을 끼치므로 폭력적 영화의 장면 이외의 요소들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연구에서 더욱 철저히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각성으로서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세 요인이 정서를 대표할 수는 없으며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폭력물 및 다른 제작물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사람들의 공격행동을 고양시키는 프로그램을 줄이려는 노력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 이외의 모든 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은정 (1986). 반응-결과 무관성 경험에 대한 귀인과 상황변인이 무기력 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 진 (1987). 폭력의 이론-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 정신 건강연구, 6, 1-10.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구소).
- 윤호운 (윤 진)과 정양은 (1970). 대리적 공격의 효과에 관한 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1, 169-177.
-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1978-1983.

- Bandura, A.(1965). Influence of models'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89-595.
- Bandura, A.(1971).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 General Learning Press.
- Bandura, A.(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m, S. L.(1975). Sex role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Berkowitz, L.(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301-330). New York : Academic Press.
- Berkowitz, L.(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 A cognitive- neoassociationist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erkowitz, L., & LePage, A.(1967). Weapons as aggression-eliciting stimul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02-207.
- Bleda, P. R., Bell, P. A., & Byrne, D.(1973). Prior induced affect and sex differences in attraction. *Memory & Cognition*, 435-438
- Block, J. H.(1973). Conceptions of sex role :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ollen, K., & Phillips, D.(1982). Imitative suicides : A national study of the effects of television news st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802-809.
- Broverman, I., Vogel, S., Broverman, D., Clarkson, F., & Rosenkrantz, P.(1972). Sex-role stereotypes :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59-78.
- Buss, A. H.(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 Wiley.
- Buss, A. H.(1963). Physical aggression in relation to different frustr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7, 1-7.
- Chesler, P.(1972). *Women and madness*. Garden City, N.Y. : Doubleday.
- Collins, A., & Loftus, E.(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Constantinople, A.(1973). Masculinity-femininity : An exception to a famous dictum ? . *Psychological Bulletin*, 80, 389-407.

- Deaux, K.(1976). *The behavior of women and man*. Monterey, CA. : Brooks/Cole.
- Donnerstein, E., Donnerstein, M., & Barrett, G.(1976). Where is the facilitation of media violence? The effects of nonexposure and placement of anger arousa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 386-398.
- Eron, L. D., Huesmann, L. R., Lefkowitz, M.M., & Walder, S. O.(1972). Does television violence cause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27, 253-263.
- Feshbach, S.(1970). Aggress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gy*. New York : Wiley.
- Geen, R. G.(1976). Observing violence in the mass media : Implications of basic research. In R. G. Geen & E. C. O'Neal (Eds.), *Perspectives on aggress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Geen, R. G., & O'Neal, E. C.(1969). Activation of cue-elicited aggression by general aro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89-292.
- Huesmann, S. R., Lagerspetz, K., & Eron, L. D.(1984). Intervening variables in the TV violence-aggression relation :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46-775
- Kagan, J., & Moss, H. A.(1962). *Birth to maturity :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Lefkowitz, M. M., Walder, L. O., Eron, S. D., & Huesmann, L. R.(1973). Preference for televised contact sports as related to sex differences on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9, 417-420.
- Leventhal, D. B., Shemberg, K. M., & Van Schoelandt, S. K.(1968). Effects of sex-role adjustment upon expression of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393-396.
- Leyens, J. -P., & Parke, R. D.(1975). Aggressive slides can induce a weap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229-236.
- Marshall, G. D., & Zimbardo, P. G.(1979). Affective consequences of inadequately explained physiological arous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970-985.
- Mehrabian, A., & Epstein, N. A.(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schel, W. (1970). Sex-typing and Socializat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Parke, R. D., Berkowitz, L., Leyens, J. -P., West, S. G., & Sebastian, R. J.(1977). Some effects of violent and nonviolent movies on the behavior

- of juvenile delinquent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10, pp. 135-171). New York : Academic Press.
- Phillips, D. P.(1979). Suicide, motor vehicle fatalities, and the mass media : Evidence toward a theory of sugges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150-1174.
- Phillips, D. P.(1982). The impact of fictional television stories on U. S. adult fatalities : New evidence on the effect of the mass media on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1340-1359
- Phillips, D. P.(1983). The impact of mass media violence on U. S. homici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560-568.
- Phillips, D. P., & Hensley, J. E.(1984). When violence is rewarded or punished : The impact of mass media stories on homicide. *Journal of Communication*, *34*, 101-116.
- Pleck, J. H.(1975). Masculinity-femininity : Current and alternate paradigms. *Sex Roles*, *1*, 161-178.
- Sherman, J. A.(1970). *On the psychology of women :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Springfield, III. : Charles C. Thomas.
- Spence, J. T., Helmreich, R. S., &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 esteem an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 Stone, S., & Hokanson, J. E.(1969). Arousal via self-puni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72-79.
- Turner, C. W., & Goldsmith, D.(1976). Effects of toy guns on children's anti-social free play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1*, 303-315.
- Turner, C. W., Simons, S. S., Berkowitz, S., & Frodi, A.(1977). The stimulation and inhibiting effects of weapons on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 355-378.
- Worchel, S., Hardy, T. W., & Hurley, R.(1976). The effects of commercial interruptions of violent and nonviolent films on viewers : subsequent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220-232.
- Wright, J., & Huston, A.(1983). A matter of form : Potentials of television for young viewers. *American Psychologist*, *38*, 835-843.
- Zillmann, D.(1971). Excitation transfer in communication-mediated aggressive

-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419-434.
- Zillmann, D.(1978). Attribution and misattribution of excitatory reactions. In J. H. Harvey, W. J. Ickes, & R.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2, pp x-x). Hillsdale, NJ : Erlbaum.
- Zillmann, D.(1979). *Hostility and aggression*. Hillsdale, NJ : Erlbaum.
- Zillmann, D., & Johnson, R. C.(1973). Motivated aggressiveness perpetuated by exposure to aggressive films and reduce by exposure to nonaggressive film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 261-276.
- Zuckerman, M., Lubin, B., Robin, s.(1969). Validations of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in Clinical Situation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94.

ABSTRACT

The Effect of Sex-Role Adjustment and Aggressive Film upon the Aggression

Bach, Yoon-Chang & Yoon, Gen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on the effect of watching aggressive films has two main purposes ;(1) to test Berkowitz's priming hypothesis that the primed aggressive thoughts and other associative emotions promote the eliciting probability of aggression ;(2) to conform the Zillmann's finding that the aggression expressed is mediated by physiological and emotional arousal. In addition, the effect of sex-role adjustment upon the aggression was tested. Seventy-two male college students were screened and selected by Bem Sex Role Inventory-(BSRI) and were allocated in one of the six conditions randomly. When the aggression was measured by the index of the electric shock intens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s of aggressive film and Ss of neutral film. However, masculine Ss were more aggressive than androgynous Ss or feminine Ss. But when measured by the index of the electric shock duration, feminine Ss were the most aggressive, and Ss of aggressive film were more aggressive than Ss of neutral film. And the aggressive film caused the emotional and physiological arousal. In addition, by the method of path analysis, the aggression was proved to be affected by aggressive film only indirectly via emotional and physiological arousal. Therefore, the two major theoretical concerns, that is, the priming hypothesis that the aggressive film primes the other emotional elements and the Zillmann's finding that the aggression is mediated by arousal were supported.